

### 3. 전통가옥의 사례\*

#### ① 양규철의 집(낙안면 남내리)

낙안성의 남문 왼쪽 남내리에 있는 작은 초가삼간이다. 남면한 길가에서 북쪽으로 꼬부라진 길을 들어서면 대문이 있고 북쪽에 안채가, 서쪽에 돼지막이 있다. 안채에는 서쪽 끝부터 1칸 크기의 온돌방 2개와 2칸 크기의 부엌이 있다. 방 앞에는 좁은 툇마루를 달고, 부엌 전면과 측면으로 처마 끝에 독립 기둥을 세워 개방했다. 부엌은 뒤 퇴칸의 기둥을 따라 뒷벽을 쳤기 때문에 한결 넓어졌다. 방에는 평주와 고주 사이에 우미량 모양의 퇴보가 걸려 있어 이채롭다. 부엌에는 판재를 살대창처럼 투각하여 만든 광창이 있다. 동쪽 마당에는 장독대를 두고 나머지 터는 채소밭이다. 대문 옆 돼지막은 죽담을 벽체로 한 간단한 구조이다. 중요민속자료 제93호로 지정되어 있다.

#### ② 이종록의 집(해룡면 도룡리 도룡마을)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전형적인 초가삼간 막살이집이다. 부엌·큰방·작은방 순으로, 앞퇴의 큰방 앞과 작은방 앞 아궁이까지 툇마루를 깔았다. 작은방 앞으로 기둥을 내세우고 담장까지 지붕을 연장한 토막식으로 만들어 헛간으로 사용한다. 막돌을 일렬로 놓아 기단을 쌓고 초석은 호박돌을 사용했다. 부엌 앞면은 판장벽을, 일부는 나무로 열개를 짜는 데 그쳤으며, 부엌 옆과 뒷면은 토벽을 쌓았다. 반5량 구조에 큰방은 띠살문을, 작은방은 종이로 마감하고 부엌문은 판장문을 달았으며 우진각지붕에 초가를 올렸다.

#### ③ 남정엽의 집(왕조동 985번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정면 3칸, 측면 15칸의 초가삼간 막살이집의 전형을 보여준다. 작은방·큰방·부엌 순으로 배치된다. 낮은 토단 위에 방형초석을 깔고 방주를 세우고, 앞퇴에는 툇마루를 낮게 깔았다. 회벽마감한 심벽에, 창호는 격자살문을 그리고 부엌에는 판장문을 달았다. 원목 생김새대로 서까래를 걸어서 짧게 돌출한 낮은 처마를 받쳤다. 개량 기와를 올린 박공지붕이었으나 원래는 초가지붕이었다.

#### ④ 김양수의 집(해룡면 농주리 농주마을)

100년이 넘는 우진각 초가삼간 홑집이다. 부엌·큰방·작은방 순으로 앞퇴에 툇마루를 작은방 아궁이까지만 내었다. 작은방 옆으로 기둥을 세워 헛간으로 사용한다. 막돌 허튼층쌓기한 기단 위에 호박돌초석을 놓았다. 반5량 구조에 우물마루를 깔고, 벽체는 부엌 징두리만 판장벽이며 옆은 죽담이고 나머지는 토벽으로 처리했다. 부엌문에는 판장문을, 나머지는 띠살문을 달았으며 환기를 위해서 부엌 상부는 열었다.

#### ⑤ 남성희의 집(승주읍 유흥리 유흥마을)

약 200년 전에 지어진 우진각 초가삼간 막살이집이다. 부엌·큰방·작은방 순으로 배열되며, 앞퇴가 없이 평상을 툇마루로 대용하여 토막식 막살이집의 전형을 보여준다. 막돌로 기단을 쌓고 막 생긴 통나무 위에 평상을 걸쳤다. 원목 그대로의 기둥을 세우고 토벽으로 벽체를

---

\* 각각 가옥의 도면과 사진을 본문 뒤에 실었다.

쌓았다. 부엌문은 판장문을, 방에는 띠살문을 달고 부엌 샛문은 빗살문을 달았다. 부엌 뒷면 상부를 열어서 환기창으로 사용한다.

⑥ 주두열의 집(낙안면 서내리)

낙안성의 동문과 서문 사이의 골목길에 있는 전형적인 초가삼간 막살이집이다. 대지는 모를 공글린 방형으로, 돌담으로 둘러져 있다. 마당 북쪽 깊숙한 곳에 안채를, 대문 옆 서남쪽에 측간을 두었다. 안채는 정면 3칸, 측면 15칸으로 부엌·큰방·작은방 순으로 배열되며, 방 앞에 반 칸 너비의 개방된 툇마루를 짜고 큰방 뒤로 작은 벽장을 만들었다. 작은방 앞에 기자로 꺾인 돌담을 쌓아 그 사이의 공간을 헛간으로 이용한다. 큰 막돌로 쌓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원목을 꺾질만 벗겨 기둥을 세워서 도리와 결구한 민도리집이다. 부엌에는 판장문을 달고, 방에는 띠살창호를 달았다. 중요민속자료 제96호로 지정되어 있다.

⑦ 조종곤의 집(황전면 대치리)

100년 전의 전형적인 우진각 초가삼간의 막살이집이다. 부엌·큰방·작은방 순으로, 앞뒤에 툇마루가 작은방 중간까지 설치되며, 작은방 옆을 연장하여 헛간으로 사용한다. 기단은 장대석 몇 개를 놓는 데 그쳤으며, 호박돌초석을 놓고 원목 그대로의 막 생긴 기둥을 세웠다. 부엌문은 판장문을, 방에는 띠살문을 사용하고 부엌 쪽 토담 위를 열어서 환기나 채광에 유리하도록 했다. 우물마루를 깔고 반5량의 구조로 만들었다.

⑧ 이한호의 집(낙안면 남내리)

낙안성의 남문을 들어서면 서쪽에 있는 길가의 막살이집이다. 남면한 죽담의 대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안마당이고, 이 마당의 깊숙한 곳에 동남향으로 안채가 있다. 앞쪽에는 동향의 헛간채가 있고, 서남쪽 죽담 모서리에 측간이 있다. 초가인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15칸으로 부엌·큰방·작은방의 순으로 배열된다. 방 앞에는 반 칸 너비의 툇마루를 달아 개방하고, 작은방 옆에는 15칸의 헛간을 만들었다. 부엌에는 조왕신이 모셔져 있고 부엌과 헛간채 사이에 장독대가 있으며, 마당 가운데 우물이 있다. 가구는 3량으로, 평주와 고주 사이의 퇴보는 우미량처럼 흰 부채를 썼다. 대공 끝에 구멍을 내어 종도리를 끼웠으며, 서까래는 비교적 굵은 송목을 썼다. 중요민속자료 제94호로 지정되어 있다.

⑨ 겸천사 주택(주암면 죽림리 죽림마을)

겸천사의 부속사였는데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부엌·방·안청 순의 4칸집이지만 부엌 옆의 1칸은 뒤에 확장한 것이므로, 원래는 간단한 막살이집에 1칸의 대청을 덧붙인 형태이다. 안청이 가운데가 아닌 우측 단부에 있고, 앞뒤 없이 쪽마루를 낸 것은 이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서남 해안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막돌 허튼층쌓기의 축대를 쌓고 덩병주초로 기둥을 세웠다. 안청과 부엌 앞뒤에는 판장벽을, 나머지는 토벽을 쌓고 우물마루를 깔 간단한 3량 구조이다. 안청과 부엌문은 판장문을, 방에는 띠살창호를 사용했다.

⑩ 최선준의 집(낙안면 동내리)

낙안성의 남문을 들어서면 중앙으로 난 큰길의 첫째 집이다. 성내에서 유일한 전(田)자형 본채는 좁은 대지 때문에 택한 평면형이라 생각된다. 남면하여 2칸, 동면하여 2칸 반인데 대문 쪽 첫 칸이 방이고 다음 칸이 부엌이다. 방 뒤가 우물마루방인데 이곳이 본래 방물장수의 점포였다고 하며, 부엌 뒤쪽이 안방이다. 대문 쪽에 면한 방(점포 앞방)과 안방 앞에는 각각 반 칸 너비의 툇마루를 달아 개방했다. 남쪽으로 쌓은 성벽 안쪽으로 측간을 두고, 동남쪽 끝에 장독대를 두었다. 막돌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굵지 않은 원목의 꺾질을 벗겨 기둥으로 세워 도리로써 결구한 민도리집 초가이다. 벽체는 흙벽이나 부엌 측벽은 돌로 쌓았고, 벽체 상부에 시렁을 매어 좁은 터의 작은 집에서 쓸모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중요민속자료 제98호로 지정되어 있다.

⑪ 박의준의 집(낙안면 동내리)

옛날 성안 사옥터에 이웃한 향리의 집으로서, 방형 대지에 안채와 아래채가 ㄱ자형으로 배치된다. 안채는 정면 4칸 반으로 부엌·안방·안청·작은방 순으로 배열된다. 측면은 부엌에

서는 2칸이 되고, 안청과 작은방에서는 1칸이 된다. 방과 상청 앞으로 반 칸의 툇마루를 짜고, 작은방 옆으로도 반 칸의 툇마루를 짰다. 비교적 높은 기단에 일부 다듬은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특히 뒤칸에 걸친 퇴보는 기둥 위에 놓은 주두 위에 걸었는데, 위로 둥글게 휘어진 형태이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지붕은 기와지붕이다. 방과 안청에는 띠살창호를 달고, 부엌에는 판장문을 달았다. 아래채는 고방과 축사인데 일부를 개조했다. 중요민속자료 제92호로 지정되어 있다.

⑫ 곽형두의 집(낙안면 남내리)

낙안성 남문 서남쪽의 전형적인 남부형 민가이다. 본래는 성내에서 가장 단아하고 건실한 구조의 초가집이었으나 기와지붕으로 개조했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15칸의 일자형으로, 부엌·큰방·고방·작은방 순으로 배열된다. 앞퇴에 툇마루를 짜고, 작은방의 옆에도 반 칸의 툇마루를 짰다. 부엌 앞에 장독대를 두고, 대문 옆 구석에 측간을 두었다. 막돌 허튼층쌓기의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워 도리와 결구한 민도리집이다. 방은 흙벽인데 고방은 판장벽이며 문짝을 달았다. 방에는 모두 띠살창호를 달고, 부엌은 판장문을 달았다. 중요민속자료 제100호로 지정되어 있다.

⑬ 김대자의 집(낙안면 서내리)

낙안성의 중앙대로 서쪽의 초가이다. 죽담의 서쪽에 난 대문을 들어서면 북쪽 깊숙이 남향의 안채가 있고, 대문 옆에 측간이 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5칸의 일자집이지만 일부 굴곡이 있어 정확히 장방형은 아니다. 서쪽 끝에 2칸 크기의 부엌을 두고, 동쪽으로 반 칸 뒤로 안방·안청을 배열하여 앞퇴에 툇마루를 걸었다. 안청 동쪽은 작은방인데, 앞에 ㄱ자로 꺾인 돌담을 쌓아 흙바닥의 헛간으로 사용한다. 장독대는 부엌 앞에 서쪽 죽담을 의지하여 마련했다. 부엌과 안방 사이에 간벽이 있는데, 중간쯤에 조왕신을 모시던 자리와 관솔불을 켜던 선반이 있다. 중요민속자료 제95호로 지정되어 있다.

⑭ 김소아의 집(낙안면 서내리)

낙안성 서문터를 나가면서 오른쪽 골목 안에 있는 초가이다. 마당 북쪽에 자리잡은 일자형 평면의 정면 4칸, 측면 15칸의 안채는 부엌·큰방·안청·작은방 순으로 배열되며, 앞퇴에 툇마루를 걸고 큰방 뒤에도 반 칸의 툇마루를 걸었다. 부엌은 서쪽 벽을 반 칸 물리고 남쪽 정면과 뒤쪽도 반 칸 정도 내쌓아 큰 편이다. 큰방 쪽으로 부뚜막을 설치하고, 그 옆 남쪽으로 판장벽을 들어 위에 벽장문을 달아 찬장처럼 쓰고 있다. 부뚜막 상부에는 조왕신을 모시던 작은 선반이 붙어 있다. 작은방 동쪽에 15칸의 헛간을, 큰방 뒤에는 장독대를 두었다. 대문 오른쪽에 정면 4칸, 측면 1칸의 헛간채가 있는데 처음 2칸은 돼지막으로, 다음은 헛간·측간 등으로 사용한다. 막돌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워 납도리로 결구한 민도리집이며 부엌에는 판장문을, 방과 안청에는 띠살창호를 달았다. 중요민속자료 제99호로 지정되어 있다.

⑮ 서의석의 집(대대동 496번지)

100년 전에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15칸의 홑집이다. 3칸 막살이집에서 중앙에 대청마루가 부가된 전형적인 남부형 민가이다. 부엌·큰방·안청·작은방 순으로, 앞퇴에 툇마루를 내었다. 낮은 토단에 호박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큰방과 작은방, 뒤칸에 회벽마감한 심벽을 쌓고, 우물마루를 깬 대청방과 부엌 판장문 옆은 판장벽으로 막았다. 부엌과 대청에는 판장문을 달고 나머지는 교살문을 달았는데, 큰방에는 호령창이라는 작은 교살창을 덧붙였다. 지붕은 아직도 벚짚을 엮은 초가를 올렸다.

⑯ 양길수의 집(왕조동 607-12번지)

100년 전에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15칸의 전형적인 남부형 홑집이다. 일부 개조되었지만 본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작은방·작은방·큰방·부엌 순이지만, 큰방 뒤로 벽선을 1m 정도 넓히고, 앞퇴에만 툇마루를 깔았다. 낮은 토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회벽마감한 심벽이었으나 시멘트 몰탈로 덮였다. 방에는 모두 격자살문을 달고 부엌에서 툇마루로 통하여 여닫는 판장문을 달았다. 지붕은 슬레이트로 개조되기 전까지 초가였다.

⑰ 조일남의 집(안풍동 711번지)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15칸의 홑집이다. 그러나 큰방과 안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기 뒤퇴를 낸 부엌과 아궁이를 갖는 작은방이 덧붙여진 겹집화 현상은, 오히려 서남 해안지역의 민가를 따르고 있다. 막쌓은 토단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으며, 잘 짜인 우물마루를 깔았다. 부엌의 앞·뒷문과 툇마루로 통하는 셋문은 판장문을, 나머지는 교살문을 달았다. 부엌에는 판장벽을, 나머지는 회벽마감한 심벽을 그리고 좌측의 작은방과 뒤칸은 흙벽으로 처리했다. 지붕은 벚짚을 엮은 초가를 올렸다.

⑱ 강백원의 집(인월동 413번지)

오래 전에 지어진 이 지역의 전형적인 4칸 홑집이다. 특히 부엌은 토담이어서 본래 부엌 1칸과 방 1칸의 막살이집에서 우측 2칸이 부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엌·큰방·안청·작은방 순으로 되고, 작은방 앞 툇마루가 끝나는 부분을 파서 아궁이를 만들었다. 막쌓은 토단에 막돌초석을 놓고 원주와 방주를 번갈아 세우고, 부엌에는 죽담을 세워서 바로 서

까래를 받게 했다. 안청에는 우물마루를 깔고 부엌에는 판장문을, 나머지는 격자살문을 달았다. 부엌과 큰방에는 토담을, 나머지는 심벽을 쌓고 초가지붕을 올렸으나 최근에 슬레이트로 개조했다.

⑲ 박원근의 집(왕조동 신월 992번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오래 전에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15칸의 홑집이다. 그러나 본래는 좌측의 작은방이 없는 3칸 막살이집으로서, 작은방·작은방·큰방·부엌 순으로 배치된다. 낮은 토단 위에 원목 그대로의 기둥을 세우고, 앞퇴에 툇마루를 낮고 짧게 내었다. 흙마감 심벽에 시멘트 몰탈을 입혔으며, 각 방에 격자살문을 달고 큰방의 호령창은 대나무 교살창을 달았으나 부엌에는 판장문을 달았다. 규모가 작은 탓에 가는 서까래로 낮은 처마를 받치고, 초가를 올렸으나 슬레이트로 개조했다.

⑳ 김기선의 집(대대동 서편 276번지)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15칸의 전형적인 남부형 홑집이다. 부엌·큰방·안청·작은방 순으로 배열되고, 앞퇴에 툇마루를 작은방 앞의 아궁이까지 깔았다. 막쌓은 토단에 막돌초석을 놓고 사각 기둥을 세웠으나, 측면과 뒤칸에는 원목 그대로의 기둥을 세웠다. 부엌과 안청에는 판장문을, 나머지는 교살문을 달았으며 우물마루를 깔았다. 회벽마감과 흙벽 그대로 마감한 심벽을 쌓고 벗짚을 엮은 초가지붕을 올렸다.

㉑ 황규식의 집(왕조동 589-1번지)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15칸의 남부형 홑집이다. 작은방·작은방·큰방·부엌 순이지만 3칸짜는 원래 안청이었다. 특히 큰방의 뒤로 짧게 퇴를 만들고, 좌측의 작은방 옆으로 아궁이를 두었다. 부엌에도 출입문이 우측 후면으로 내어져서 특이한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 낮은 기단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으며, 회벽마감한 심벽 퇴락부에는 시멘트를 발랐다. 창호는 부엌의 판장문 외에는 모두 격자살문을 달고, 개량 기와로 바꾼 모임지붕을 올렸다.

㉒ 김영길의 집(왕조동 327번지)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15칸의 홑집이다. 작은방·부엌·큰방·작은방 순으로 배치되어 부엌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 해안의 평면형이라 하겠으나, 좌측 작은방은 이후에 덧붙인 부분이므로 원래는 초가삼간의 막살이집이었다. 앞퇴에만 큰 막돌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징두리 벽체는 퇴락이 심하여 시멘트로 입히고 위에는 회벽마감된 심벽이다. 부엌문은 징두리를 판벽으로 하고 그 사이에 판장문을, 나머지는 격자살문을 달았다. 지붕은 최근에 초가를 슬레이트로 바꾼 모임지붕이다.

㉓ 조동진의 집(매곡동 316번지)

100년이 넘는 정면 5칸, 측면 15칸의 홑집으로서, 도심 내에 위치하여 많이 개조되었지만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 부엌·큰방·안청·작은방·부엌 순이지만 우측의 부엌은 이후에 부가된 것이므로 원래는 안청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남부형 민가였다. 낮은 기단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안청은 우물마루를 짜고 앞퇴에 툇마루를 걸었다. 부엌문은

현재 합판으로 짜 맞춘 것을 달았으며, 대청과 다른 방에는 격자살문을 달았다. 벽체는 회벽 마감한 심벽 위에 페인트로 칠하고, 지붕은 20여 년 전에 초가를 슬레이트로 개조했다.

㉔ 한씨 집(해룡면 도룡리 도룡마을)

120여 년 전의 주택으로 추정되는 우진각 4칸 초가로서 부엌방·부엌·큰방·작은방 순으로 배치되며, 앞퇴 두 칸에 뒷마루를 깔았다. 그런데 부엌 앞으로 방이 부가되고 뒤켠을 헛간으로 사용하는 겹집화 현상은 서남 해안지역과 통하는 것이다. 다듬은 돌을 나란히 놓아서 기단을 쌓고 호박돌초석 위에 둥근 원목의 기둥을 세워서 도리를 받게 했다. 부엌의 판장벽 외에는 토벽을 쌓고, 판장문의 부엌문 외에는 모두 띠살창호를 달았다. 부엌 뒷면과 측면에 구멍을 뚫어 환기와 채광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㉕ 조영근의 집(해룡면 선학리 선학마을)

약 120년 전에 건립된 우진각 초가로서 정면 4.5칸, 측면 1.5칸의 5량가 홑집이다. 부엌·큰방·안청·작은방 순으로 배치되고 앞퇴에만 뒷마루를 깎아 전형적인 남부형 민가이다. 장대석으로 기단을 쌓고, 호박돌초석 위에 방주를 세웠다. 우물마루를 짜고 부엌 앞 징두리벽에 판벽을, 좌측면에는 돌담을 쌓고 그외는 토벽으로 처리했다. 부엌은 판장문을, 나머지는 띠살문을 달았으며 위로 살창을 내어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도록 했다.

㉖ 조씨 집(해룡면 선학리 선학마을)

200여 년 전에 지어진 반5량에 정면 4칸, 측면 1.5칸의 우진각 초가 홑집이다. 축사·작은방·큰방·부엌 순으로 배열되며, 앞퇴에 뒷마루를 깔았다. 특히 외양간이 본체에 부속된다든지, 부엌 앞으로 반담을 쌓아서 토막식으로 만든 것은 이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특이한 예이다. 장대석을 가지런히 놓아 기단을 만들고 호박돌초석 위에 방주와 원목 그대로의 기둥을 세웠다. 흙과 돌로 쌓은 죽담을 두르고 앞부분은 토벽을 쌓았다. 부엌에는 판장문을, 나머지는 띠살문을 달고 뒤로 광창을 내거나 환기창을 내었다.

㉗ 이동익의 집(삼거동 245번지)

120여 년 전에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1.5칸의 홑집이다. 본래는 전형적인 초가삼간의 막살이집이었으나 좌측에 축사가 부가되어 축사·작은방·큰방·부엌 순으로 배치되어 해룡면 선학리의 조씨 집과 같은 형식이다. 앞퇴에 뒷마루를 내고, 비교적 높은 막돌 기단에 호박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부엌에만 판장문을 달고 나머지는 격자살문을 달았으며, 회벽 마감한 심벽을 쌓았다. 개수시에 초가를 슬레이트로 바꾸었다.

㉘ 강명수의 집(송광면 우산리 곡천마을)

150여 년 전에 초가로 지어진 것을 팔작 기와지붕으로 개조한 5량가, 정면 4칸의 홑집이다. 부엌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기 방을 배열하고, 부엌 뒤로 반 칸의 퇴가 있는 겹집화의 현상은 서남 해안지역의 유형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엌 뒷면과 방 사이에 봉당의 역할을 하는 뒷마루를 둔 것이다. 기단은 몰탈 마감으로 개조했으며, 호박돌초석 위에 잘 치목한 방주를 도리와 결구시켰다. 부엌 앞면과 좌측 방의 징두리벽에는 판장벽을, 나머지는 토벽으로 처리했다. 부엌에는 판장문을, 나머지는 띠살문을 달았으며 부엌 옆방은 봉창에 환기창을 뚫

어 채광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㉑ 조현규의 집(송광면 낙수리 낙수마을)

약 90년 전에 지어진 우진각 초가였으나 최근 기와로 개량한 5량가에 정면 4칸, 측면 15칸의 전형적인 안청 중심의 남부형 홑집이다. 부엌·큰방·안청·작은방 순으로 배치되고 앞퇴에 뒷마루를 걸었다. 막돌로 기단을 쌓고 막돌초석 위에 치목한 방주를 세웠다. 부엌과 안청의 앞면은 판벽을, 나머지는 토벽으로 쌓았다. 안청은 우물마루를 짜고 부엌문과 안청문은 판장문을, 나머지는 띠살문을 달았다. 부엌 옆에 광창을 내고, 뒷면에는 봉창을 내어 광창과 환기창으로 사용한다.

⑩ 조규문의 집(송광면 구룡리 오룡마을)

200년이 넘는 초가를 팔작 기와지붕으로 개조한 정면 5칸, 측면 15칸의 민가이다. 곳간방·부엌·큰방·안청·작은방 순으로 배치되는 안청 중심의 남부형 민가이지만, 부엌 뒤쪽과 옆으로 확장되어 겹집화 경향을 보인다. 곳간방 앞에도 뒷마루가 설치되는 등 확장과정에서 부엌이 겹집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기단은 시멘트로 보수했고, 덩벙초석 위에 치목한 방주를 세웠다. 부엌과 안청 앞면은 판벽이며, 나머지는 토벽을 쌓았다. 부엌과 안청은 판장문을, 나머지는 띠살문을 달았다. 부엌에 딸린 곳간방 앞과 작은방 옆에 광창을 내었다.

⑪ 정병모의 집(대대동 서편 552번지)

약 100년 전에 지어진 정면 5칸, 측면 15칸의 전형적인 남부형 홑집으로 곳간·부엌·큰방·안청·작은방 순으로 배열되며, 앞뒤에 뒷마루를 깔았다. 그래서 안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앞의 조규문의 집과 같이 부엌 앞과 옆으로 확장되어 겹집화의 경향을 보여준다. 토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으나, 좌측 작은방 앞은 원목 그대로의 기둥을 세웠다. 회벽마감한 심벽을 사용하고, 창고방과 뒤칸은 흙마감에 그쳤다. 큰방·안청·작은방에는 교살문을, 부엌 앞문과 뒷문은 판장문을 달았으며 부엌 바로 옆에 절구통을 두었다. 현재는 우진각 슬레이트지붕이나, 원래는 초가를 올렸다.

⑫ 서길윤의 집(대대동 219번지)

약 100년 전에 지어진 정면 6칸, 측면 2칸의 홑집으로 중농의 주택이다. 좌측 창고방·큰방·안청·작은방·작은방·부엌 순으로 배열되며, 중앙 4칸의 앞뒤에 뒷마루를 깔았다. 부엌에만 판장문을 달고, 나머지는 교살문을 달았다. 다만 큰방에는 울거미문을 달았으나 이후 개조된 것이며, 안청에는 창호를 달지 않았다. 토단 위에 막돌을 깔고 방주를 세웠으며, 벽체는 심벽으로 회벽마감하였다. 방으로 사용되는 곳의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하고 안청에는 연등천장을 꾸몄다. 개량 기와를 올리기 전까지는 초가지붕이었다.

⑬ 서정영의 집(안풍동 759번지)

약 100년 전에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15칸의 남부형 민가이다. 부엌·큰방·작은방·부엌·작은방으로 배열되는데, 우측 끝의 작은방은 유리창을 달고 뒷마루로 연결되므로 서남해안지역과 같은 계통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래는 초가삼간이던 것을 부엌과 방 하나씩을 이후에 부가시킴으로써 나타난 겹집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높은 석축으로 기단을 쌓고 방형초석 위에 잘 치목된 방주를 세웠으나, 우측 끝 작은방 모서리 부분과 뒤칸에는 원목 그대로의 가는 기둥을 세웠다. 부엌 앞은 퇴칸만큼 들어서 판장문을, 뒤편은 판벽으로 막고 연등천장을 꾸몄다. 부엌에 딸린 방에는 판장문을, 나머지는 교살문을 달았다. 부엌의 판벽을 제외하면 심벽에 회벽마감하고, 개조하기 전까지 초가였다.

⑭ 서병원의 집(안풍동 안지 675번지)

100년이 훨씬 넘는 정면 6칸, 측면 15칸으로 대대동 서길윤의 집과 같이 서남해안지역형의 민가이다. 부엌·부엌방·작은방·안청·큰방·큰 부엌 순으로 배열되나 큰방은 뒤로 반 칸이 더 나가고, 부엌방 앞으로 작은 부엌이 겹집화됨을 볼 수 있다. 안청은 우물마루를 깔고 판장문을 달았다. 토단을 쌓고 막돌초석 위에 방주를 세웠다. 창호 간벽은 판벽으로, 뒤칸은

흙마감한 심벽을 쌓았다. 부엌문과 우물마루를 칸 안청에는 판장문을, 나머지는 교살문을 달았으며 아직까지 벗짚을 엮은 초가지붕이다.

㉟ 정정남의 집(인안동 705번지)

100년이 넘는 정면 6칸, 측면 2칸의 특이한 주택이다. 작은방·안청·큰방·부엌 순으로 배치되며, 앞퇴를 1칸 정도로 깊게 내어 마치 겹집과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규모가 큰 만큼 정연한 기단 위에 숙석초석을 놓고, 굽은 방주를 세워서 원형 서까래를 받쳤다. 부엌에만 판장문을 달고 나머지는 교살문을 달았으며, 벽체도 회벽마감한 심벽으로 만들었다. 높게 칸마루는 안청과 앞퇴에도 우물마루로 깔고, 한식 기와를 올린 팔작지붕을 올렸다.

㊱ 이종문의 집(삼거동 243번지)

약 120년 전에 지어진 정면 5칸, 측면 15칸의 홑집이다. 곳간·부엌·큰방·작은방·작은방 순으로 배열되는데, 곳간이 부엌 옆으로 부가된 것은 이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예이다. 원래는 3칸 막살이집이었으나 좌우로 1칸씩을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견치석 기단을 높게 쌓고 큰 막돌 위에 방주를 세워서 서까래를 받쳤다. 부엌은 판장문을 달고 좌우를 판장벽으로 막았으며, 나머지는 회벽마감한 벽체에 격자살문을 달았다. 최근에 마루와 지붕을 보수할 때 안청을 온돌방으로 만들고,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개수했다.

㊱ 이석남의 집(장천동 159번지)

약 100년 전에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15칸의 홑집이다. 도심의 대지에 맞게 개조한 탓에 일자형이 겹집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부가된 부엌·부엌방·작은방·큰방·부엌·부엌방 순으로 배열되며, 2·3칸짜의 앞퇴에 뒷마루를 깔아서 부엌에서 뒷마루로 통하도록 했다. 낮은 기단이나 마당도 시멘트 마감으로 개조하고 부엌문도 합판으로 짜서 달았으며, 지붕도 슬레이트로 바꾼 모임지붕을 올렸다.

㊱ 임용규의 집(삼거동 241번지)

120여 년 전에 지어진 정면 6칸, 측면 15칸의 규모가 큰 주택이지만 좌우의 곳간과 축사는 이후에 부가된 것이다. 작은방·부엌·큰방·안청·작은방·축사 순으로 배열되지만, 원래는 안청을 중심으로 앞퇴에 뒷마루를 짠 전형적인 남부형 4칸 홑집이었다. 낮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그러나 뒤쪽에는 간소한 원목기둥을 세우고, 벽체도 흙벽과 돌담을 쌓고 앞면에만 회벽으로 마감했다. 부엌에는 판장문을, 나머지는 격자살문을 달았으며 지붕은 최근 슬레이트로 개조하기 전까지 우진각 초가였다.

㊱ 이성균의 집(삼거동 283번지)

140여 년 전에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15칸의 홑집이다. 반 칸의 헛간·작은방·큰방·부엌·부엌방 순으로 배열되나, 작은방 문이 판장문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마루를 칸 안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3칸짜의 방 뒤로도 뒷마루를 깔고, 헛간이 부속되는 것은 서남 해안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높게 쌓은 토단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앞면은 회벽마감하고 나머지는 흙마감 심벽을 쌓았으며, 부엌 판장문 좌우를 판벽으로 막았다. 부엌 뒷문과 2칸짜의 방에도 판장문을 달고, 나머지는 격자살문을 달았다. 지붕은 최근 슬레

이트로 개수하기 전까지 우진각 초가였다.

⑩ 조일훈의 집(승주읍 유흥리 유동마을)

약 100년 전의 건물로 추정되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우진각 초가이다. 측사·작은방·큰방·부엌 순으로 배열되며, 외양간이 부속되는 특이한 예이다. 본래 앞퇴가 없이 평상을 방문 앞에 놓고 사용하는 전형적인 막살이집이었으나, 이후 실들이 부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막돌을 쌓아 기단을 만들고 호박돌초석을 사용했다. 벽체는 부엌 뒷면의 죽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토벽이다. 부엌에는 판장문을, 나머지에는 빗살문을 달고 부엌문 위쪽을 환기에 유리하도록 열었다.

⑪ 위계운의 집(남정동 213번지)

80여 년 전에 지어진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 기와집이다. 도심 내에 위치하며, 창고 등을 개조한 바 있지만 본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작은방·부엌·큰방·안청·작은방·작은방 순으로 겹집의 형태를 보여주는 특이한 예이다. 앞퇴의 뒷마루는 큰방과 안청 앞에 만들고, 우측 작은방 앞으로는 퇴칸 없이 짧게 달아내었다. 지금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한 낮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벽체는 회벽마감한 심벽이며 큰방과 작은방 등에는 격자살문을, 좌우의 작은방 앞으로 유리를 끼운 용(用)자창을 달았다.

⑫ 최정기의 집(낙안면 상송리)

300여 년이나 된 정면 4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초가이다. 좌측의 모방이 부엌 뒤켠과 겹집화되고, 다시 큰방·작은방 순으로 배열된다. 이와 같이 부엌을 중심으로 실들이 부가되어 겹집으로 확장되는 예는 이 지역에서는 드물고 오히려 서남 해안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단은 막돌 허튼층쌓기하여 호박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웠다. 방의 앞면은 토벽이며 그외에는 흙돌담을 쌓았다. 부엌 판장문을 제외하면 모두 띠살문이다. 방 뒤로 띠살무늬의 광창을, 옆방은 빗살무늬의 광창을 설치하고 봉창을 뚫어 환기창으로 사용한다.

⑬ 김두홍의 집(장천동 150번지)

약 100년 전에 지어진 정면 5칸, 측면 1.5칸의 홑집이지만 왼쪽 작은방은 이후에 부가된 것이다. 그래서 작은방·작은방·안청·큰방·부엌·부엌방 순으로 되어 일부 겹집화 현상을 보여준다. 뒷마루는 앞퇴 전부에 깔고 부엌에서 통하도록 만들었다. 다만 안청은 이후 온돌방으로 개조하였다. 낮은 토단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여 방형초석을 깔고, 방주를 세워 서까래를 받쳤다. 회벽마감한 심벽을 쌓고 창호는 모든 방에 격자살문을, 부엌문과 뒷마루로 통하는 곳에 판장문을 달았다. 개조 전까지 우진각 초가였다.

⑭ 김두수의 집(해룡면 해창리)

약 90년 전에 지어진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집이다. 겹집화된 부엌·큰방·안청·작은방의 순으로 배치되며, 큰방 뒤칸은 헛간으로 사용하는 완전한 겹집의 형태로서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문 예이다. 화강암 장대석으로 기단을 쌓고, 다듬은 원형초석 위에 원주를 세워 서까래를 받쳤다. 부엌 앞면만 판벽으로 막고 나머지 벽체는 심벽이다. 부엌문과 안청 뒷문은 판장문을, 나머지는 띠살문을 달았다.

④⑤ 채규형의 집(해룡면 농주리 농주마을)

해변 마을의 100년이 넘는 정면 5칸, 측면 15칸의 전형적인 반5량가의 남부형 홑집이다. 작은방·안청·큰방·부엌·작은방 순으로 배열되어 부엌 중심형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측 작은방은 이후에 부가된 것이므로 공간은 안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좌측 작은방 중간에서 큰방 앞, 오른쪽 작은방 앞에 뒷마루를 짰다. 막돌 허튼층쌓기한 기단 위에 호박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도리와 결구시켰다. 부엌과 안청 앞에는 판벽을, 나머지는 토벽을 쌓고 우물마루를 깔았다. 부엌과 안청에는 판장문을 달고 나머지는 띠살문을 달았으며, 부엌과 작은방에는 환기와 채광에 유리하도록 광창을 내었다.

④⑥ 최동림의 집(해룡면 하사리)

70여 년 전에 지어진 팔작 기와집으로 정면 4칸, 측면 2칸의 겹집이다. 작은방·안청·큰방·부엌 순으로 배열되며, 앞퇴를 전부 뒷마루로 깔고 뒤퇴만큼 고방을 둔 겹집으로 꾸몄다. 부엌 앞면은 조그만 누마루가 있어 아래는 저장고로, 위는 뒤주 등을 두었으며 안청은 우물마루를 깔았다. 잘 다듬은 둥근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워서 5량가의 지붕틀을 받쳤다. 창호는 모두 띠살문을 사용하나 부엌에만 골판문을 달았으며, 부엌 뒷면에는 판장벽을 뚫어서 광창으로 사용한다.

④⑦ 조태진의 집(송광면 대곡리 개곡마을)

300여 년 전에 지어진 중택으로서 정면 6칸, 측면 2칸의 5량가 겹집이다. 부엌·큰방·작은방·작은방·안청·겹집화된 두 개의 작은방·옆퇴 순으로 배열되며, 앞·뒤·옆퇴로 뒷마루를 간 특이한 겹집이다. 특히 넓은 부엌 뒤로 방들과 셋문으로 연결되는 뒷마루를 간 것은 특이한 예이다. 기단은 잘 다듬은 장대석을 쌓아 격식을 갖추고, 초석을 놓아 방주를 세웠다. 부엌 앞면은 판장벽으로, 나머지 벽체는 회벽으로 마감했다. 부엌문은 판장문을, 나머지 문들은 띠살창을 사용하고 띠살창도 일부 사용했다. 겹집으로 된 오른쪽 상방과 고방에는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도록 광창을 열었으며, 팔작지붕에 기와잇기를 했다.

④⑧ 김선우의 집(조곡동 499번지)

200여 년 전에 지어진 상류주택이다. 방형 대지에 안채와 행랑채, 사랑채가 남향으로 배치된다. 3칸의 솟을대문을 만들었는데, 잘 치목한 각형 부연과 원형 서까래 위에 한식 기와를 잇기하였다. 계단이나 기단, 초석 등에 숙석한 석재를 사용했다. 보도를 따라 들어가면 정면 6칸, 측면 5칸의 안채로 통한다. 좌측으로부터 건넌방·작은방·2칸 대청·작은방·안방의 순이며, ㄱ자형으로 꺾인 부분에도 3개의 작은방을 두었으며, 안방 옆으로 부엌을 두었다. 앞퇴와 안방과 부엌 뒤퇴에 뒷마루를 깔았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3칸의 겹집이다. 현재는 8개의 방들로 꾸며졌지만, 장지문으로 막았으므로 통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중앙칸은 대청이었으나 이후에 개조되었다. 정면 7칸, 측면 9칸의 ㄱ자형 건물이다. 곳간과 고용인들의 살림집, 그리고 측간이 들어선 행랑채는 격이 떨어진다. 각 방의 교살문 위로 다락창을 낼 정도로 층고가 높고 각형 부연과 서까래로 기와지붕을 올렸으나, 행랑채에는 개량 기와를 올렸다. 기단·초석·섬들은 숙석한 석재를 사용하고, 징두리벽에는 붉은 벽돌을 사용했다. 대청과 뒷마루 모두 우물마루로 짜고 밖으로 교살창호를, 안쪽에는 아(亞)자살창호를 겹으로 달았다. 대문과 사랑채로 들어가는 협문, 안채로 통하는 중문도 울거미를 잘 짜

서 맞춘 문을 달았으며 특히 협문의 문얼굴(문틀)은 상부를 벽돌 아치틀기로 꾸몄다.

㉟ 서원석의 집(가곡동 81번지)

80여 년 전에 지어진 제각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솥을대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넓은 대지에 선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좌우 1칸씩을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퇴칸 기둥은 치목한 원주를, 나머지는 방주를 세웠으며 처마 모서리에는 처짐을 막기 위해서 높은 8각 기단 위에 활주를 세웠다. 기단과 초석, 섬돌을 모두 숙석하여 사용했다. 창호는 중앙 3칸의 대청에 교살을 4분합으로, 양쪽 방 앞은 아자문을 안에, 교살문을 밖에 곁으로 달았다. 잘 치목한 각형 부연과 원형 서까래를 건 한식 기와의 팔작지붕을 올렸으며, 앞퇴의 기둥에는 주련을 건 고급스런 건물이다.

㊱ 추중구의 집(금곡동 102번지)

서당으로 사용되던 건물로서 부재의 정연한 치목이 돋보이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곁집이다. 큰방·작은방·안청·작은방·부엌·부엌방 순으로 배열되나, 부엌은 이후에 부가된 것이다. 방들은 모두 장지문으로 개폐가 가능하며, 앞뒤 퇴칸에 빗마루를 깔았다. 잘 다듬은 3단의 섬돌로 오를 만큼 장대석으로 기단을 높게 축조하고, 고복석처럼 새긴 방형초석을 놓았다. 원주는 앞퇴에 세우고, 내부로 방주를 세웠다. 길게 나온 처마를 받치기 위하여 원형 서까래와 각형 부연을 걸고, 그 위에 한식 기와를 덮은 팔작지붕을 올렸다. 마루는 퇴칸, 안청에 모두 우물마루를 깔았다. 특히 정면 퇴칸은 상당히 깊게 하고, 벽체는 회벽으로 마감했으며 격자살문과 아자창호를 곁쳐 달았다.

㊱ 최창우의 집(낙안면 동내리)

낙안성의 동문 길가에 있던 여러 점포 중에서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집이다. 점포는 1칸 크기로 큰길에 면한 동남향에 자리잡고 있으며, 점포 뒤로 1칸의 점포방이 꾸며져 있다. 안채는 부엌·방·헛간의 순으로 배열되며, ㄱ자로 꺾이면서 다시 작은 방 1칸을 두어 점포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 집은 전체적으로 ㄱ자형의 평면을 이루는데, 이러한 예는 이 마을에서 드문 편이다. 막돌 허튼층쌓기의 기단 위에 막돌 허튼층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워 도리와 결구한 납도리집으로, 지붕은 홀처마에 슬레이트로 개조한 팔작지붕이다. 부엌문은 함석으로 개조했으나 옆벽은 일부 판장벽으로 되어 있어 본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방에는 띠살창호와 용자살창호를 달았다. 중요민속자료 제97호이다.